기상학회 발전을 위한 소고(小考)

부경대 위성정보과학과 | 김 영 섭

세월의 흐름은 게으름이 없어 계미년(癸未年)도 이제 꼬리만 남았다. 금년은 우리 학회가 마흔 살 되는 해였기에 그 의미가 새로웠다. 사람 나이 마흔이면 불혹(不惑)이라 했던가. 그동안 학회는 살아 있는 조직체로서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굳건히 발전해갈 것임에 틀림없다. 세상사가 항상 그렇지만 개인이나 조직이나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의 갭이 크면 클수록 변화의 바람이 거세기 마련이다. 20세기 말에 시작된 지식정보화 사회의 파도는 이제 백파를 보일만큼 거세져서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라는 파도 속에서 우리 기상학회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할지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지식정보사회와 학회

학회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간단하다. 즉, 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로써 우리 학회 정관을 통해 알아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상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① 학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② 학술회합의 개최
③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④ 학술의 교류
⑤ 기상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건의
⑥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학회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지식정보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학문의 목적이 모르는 것에 답을 찾는 행위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요, 발견된 가치를 널리 보급하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학회의 역할은 그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Nonaka Ikujiro라는 학자는 지식창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경험의 공유를 의미하는 사회화(socialization), 노하우를 말이나 형식으로 표출하는 외부화(externalization), 말과 형식에 체계를 부여하는 종합화(combination), 경험학습을 통해서 말이나 형식을 암묵지화 하는 내부화(internalization)를 들고, 이들은 상호 피드백을 통해 지식변환 체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식변환을 실현해주는 가장 좋은 마당의 예가 학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학회는 개개인의 경험과 감정, 느낌 그리고 정신모델이 공유되는 생성마당(originating field)이고, 개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대화마당(dialoging field)이고, 개인이 집합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화 마당(systemizing field)이고, 그리고 개인이 형식화 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장(exercising field)이기도 하다.

소위 IT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기상학도 더욱 세분화 ·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 슈퍼컴

퓨터를 이용한 수치예보가 일기예보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기상감시 기술은 레이더와 위성을 통하여 첨단화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방대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 결과의 표출과 전달기술은 오솔길에서 고속도로로 접어든지 오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상기술과 정보를 개인이 전부 찾아내고 분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면, 학회의 기능과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앞으로도 더욱 무게를 더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상학회는 기상지식정보화사회의 시작점이며 끝점이라는 사실을 우리 학회원 모두 심각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2. 기상학회의 현황

일 년에 두 차례 열리는 학술대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우리 학회의 규모나 살림살이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회　원: 1351명(정회원 1118명, 준회원 188명, 단체회원 45단체)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20명(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명
- 평의원: 100명(대학 46%, 기상청 28%, 공군 8%, 기타 18%)
- 위원회: 7개(포상, 편집, 학술, 용어심의, 연구개발, 교육, 국제협력)
- 학회상: 6종류(운재/월봉/송천/묵산학술상, 공로상, 우수학위논문상)
- 연간 회의: 이사회 6회, 총회 2회, 각종 위원회 약 4회, 외부회의참석 8회
- 각종 활동: 청소년 이공계진로 엑스포 참가, 과학축전 참가, 홍보활동 등
- 초청강연: 연간 약 4건(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 학술대회 논문 발표수: 연간 약 360편(구두 60%, 포스터 40%)
- 학술지발간: 한국기상학회지 6권(논문 약 50편 650페이지), KJAS 2권(논문 약 20편 200페이지), 대기지 4권(약 1500페이지)
- 학회수입: 236백만원(이월금 27%, 회비 7%, 논문게재료 12%, 유관단체 지원금 16%, 학술대회등록비 11%, 찬조/기부금 4%, 학술용역수입금 12%, 포상비 3%, 기타 8%)
- 학회지출: 236백만원(학술지발행비 17%, 학술대회비 25%, 경상비 3%, 인건비 14%, 섭외/홍보비 5%, 회의비 2%, 이월금 23%, 기타 11%)
- 각종기금: 총 239백만원(일반 131백만원, 국제학술 27백만원, 월봉 10백만원, 묵산 31백만원, 운재 16백만원, 송천 24백만원)

3. 학회발전 방안

마흔 살이 된 우리 학회는 위에서 본 학회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 학문분야의 학회들에 비해 회원 수나 예산 규모 등에서 덩치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규모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

업내용을 다양화 · 내실화해서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학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활용
- 학회 행정업무의 개선(회비납부 포함)
- 온라인 회의 및 심사제도 도입
- 온라인 논문심사제도 도입
- 사이버대학 및 연구소 구축
- 해외학회와 사이버공간 공유사업 추진

2) 학술행사의 개선
- 참가규모를 고려한 학술대회 장소 선정
- 가을 학술대회를 국제화(국제심포지엄)
- 분야(과)별 소규모 학술행사 유도 및 정착
- 젊은 과학자의 교류 활성화
- 젊은 과학자를 위한 특별 전문교육 프로그램 도입

3) 국제협력 강화
- 인접국과의 정기적인 인적교류
- 공동 국제학술지 발간 추진
- 정보공유사업 및 공동 연구사업 추진

4) 학회지/교재 개발 사업의 강화
- 학술대회발표 논문의 특별호 발간
- 논문 투고율 제고
- 영문논문 게재에 따른 개인 부담률 저감방안 강구
- 전문용어의 상시 심의 제도 도입
- 대학 교재 개발 보급

이 밖에도 회원 발굴, 재원 확충, 학회비 징수율 제고, 각종 규정의 수정, 능동적인 홍보, 타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추진 등등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수많은 발전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4. 맺음말

학회는 지식정보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 이전에는 학회 또는 연구자들이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의 변화가 학회나 연구자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이끌고, 다양한 역할수행을 요구한다. 학회는 개인이나 타 집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브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학회가 서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이른바 네트워크효과에 의해 분야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발전도 이끌 수 있다. 학회의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수행은 학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회원 각자가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참여할 때만이 학회의 발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